

# 커피값의 반란... 1천~2천원대 '착한 커피' 뜬다

### 대학·주택가 중심 소비급증 편의점 등 가격 내리기 나서 지역 커피점도 값 인하 동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대학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1000원대의 '저렴한 커피' 바람이 불고 있다. 1잔에 4000원대 안팎인 값비싼 '프리미엄' 커피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커피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이커리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이 일반 커피전문점보다 가격대가 크게 낮으면서도 품질은 비슷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가 높은 커피를 잇따라 내놓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연초 합리적인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표방한 커피 브랜드 '카페 아다지오'를 출시했다. 가격은 아메리카노 2500원, 카페라떼·카페모카 3500원 등으로 아메리카노가 4000~5000원인 커피 전문점의 50~70% 선이다. 파리바게뜨는 카페 아다지오 출시 후 커피 매출이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역시 최근 자체 커피 브랜드 '맥카페'를 새단장하면서 커피 가격을 최대 600원 인하했다. 미디움 기준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각각 2900원에서 2300원으로, 아메리카노는 23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다.

저렴한 커피 바람에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대 원두커피 인기도 뜨겁다. 편의

점 씨유(CU)에서는 지난해 에스프레소 커피 매출이 전년보다 32.9% 증가했다. 씨유는 전체 점포의 절반가량인 4000여개 점포에서 에스프레소 커피 기계로 즉석에서 내린 커피를 1000원에서 1500원사이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미니홈도 커피 전문회사 자량과 공동 개발한 원두커피 브랜드 '미니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가격은 1000원이며 종류는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2가지다.

지역 커피전문점도 가성비 좋은 커피를 판매하며 커피값 인하 바람에 동참하고 있다. 커피전문 브랜드인 커피에담과 커피뷰는집 등은 신규 개점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차별화된 1000원대 커피(아메리카노 기준)로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다. 저렴한지만 질 좋은 커피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학가 주변에서 지역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커피 수입량 증가와 함께 원두커피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며 "학생과 주부들에게 호응도 좋고 덕분에 판매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에 일반 커피전문점 업계도 커피값을 일부 인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커피전문점 드림탑은 통상적으로 1만원대에서 형성된 스페셜 커피 가격을 5000원대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작은 사치" 열풍으로 프리미엄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현재의 커피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강한 만큼 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것도 매출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6.81 (+11.01)
- ▼ 금리 (국고채 3년) 2.00% (-0.03)
- ▼ 코스닥 621.81 (-2.75)
- ▲ 환율 (USD) 1100.80원 (+2.40)

## 삼성전자 '갤럭시S6·S6 엣지' 공개

### 다음달 10일 출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가 완전한 탈바꿈을 하고 다시 태어났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15)' 개막 전날인 1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S6'와 여기에 모서리 화면을 적용한 '갤럭시S6 엣지'를 함께 공개했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모두 32GB, 64GB, 128GB 등 3가지 메모리 용량으로 나오며 출시일은 4월 10일로 정해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은행 삼성동지점 개점식 갖고 본격 영업

광주은행은 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삼성동지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삼성동지점은 김한 은행장 취임 이후 광주은행이 서울에 개점한 첫 번째 점포로, 수도권 영업력을 강화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81㎡(55평)규모의 이 지점에는 지점장을 포함해 5명이 근무한다.

김한 은행장은 "서울에는 광주은행의 잠재고객인 광주·전남 출신 주민 및 상공인들이 무척 많이 있다"면서 "광주은행 소형점포를 수도권에 배치해 이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오늘은 삼겹살데이 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돈육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삼겹살을 살펴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3월3일을 3이 두 번 겹쳐 일명 '삼겹살데이'로 부르며 돼지고기 판매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금호타이어 도급화 철회... 분신 사태 일단락

### 유가족 보상 절차만 남아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광주공장에서 열린 노사의 2차 특별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철회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노사는 유가족 보상을 놓고 최종 협의를 하는 단계"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가다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5일 광주공장에서 열린 노사의 2차 특별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철회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노사는 유가족 보상을 놓고 최종 협의를 하는 단계"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가다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금호산업 매각 입찰적격자 호반건설 등 5개사 선정

### 4월말까지 제안서 제출

### 중도 포기 신세계 제외

금호산업 인수전은 5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주관사인 인수는 인수의향을 제출한 호반건설 등 5개사를 매각 입찰적격자로 선정했다. 5개사는 중도 포기한 신세계를 제외하고, 호반건설과 IBK투자증권-케이이스트 컨소시엄, MBK파트너스, IMM 프라이빗에쿼티(PE), 자베스파트너스 등

이다. 인수 적격 예비후보로 선정된 이들 기업들은 오는 9일부터 5주간 예비실사를 받은 뒤 4월 말 입찰가격을 포함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매각주관사는 제안서 검토 뒤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된 입찰 가격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달되며 박 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적은 가격보다 1원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금호산업은 박 회장의 소유가 된다.

한때 신세계의 가세로 금호산업은 주가

가 치솟으며 '매각가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신세계가 포기한 뒤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인수금액은 그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지분 30.08%)인데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지분 46.00%를 갖고 있고, 금호터미널(지분율 100%), 금호사육(79.90%), 아시아나개발(100%), 아시아나IDT(100%)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인수 후보기업들이 인수금액을 얼마 만큼 책정할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 측은 금호산업을 꼭 되찾아오겠

다는 의지를 수 차례 피력하고 있고, 최근 전략적 투자자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의 품에 다시 안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금호산업 매각은 늦어도 6월까지의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금호고속 매각과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달 금호고속 현 최대 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이스트 파트너로부터 5000억원 안팎의 인수가격을 제안받은 뒤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는 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행사하지 않으면 금호고속은 공개매각 방식으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11~13일 광주서 열린다

### 'SWEET 2015' DJ센터서

전남도가 광주시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5'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SWEET 2015(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15)'는 태양광·열,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에너지 효율 분야 특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20개국 200개사가 550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로부터 8년 연속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SWEET 2015'는 한국전선산업진흥회로부터 9년 연속

'국제 인종 전시회'로 지정된 공신력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다.

국내 유사 전시회 중 유일하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상담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3억6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본행사장에는 전남의 태양광, 풍력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전남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호주 최대의 태양열 온수난방 업체인 솔라하트와 찰스 스퀴스, 미국 90년 전통의 태양열업체 림, 중국의 광명솔라 등 해외 기업이 참가한다.

윤현석기자chadol@

## 고차이나가 쏜다

2015년 신학기를 맞아 고차이나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2월25일까지 사전 등록 시 수강료 10% 할인
- 중국어 시작반 등록생 전원 교재·단어장 무료증정
- HSK 리스타트 2개월 완성반 등록시 2개월 차 수강료 50% 할인 (기간만료 수험표 지참)
- 기존 수강생 특별할인 3월 등록 수강료 20% 할인 [완성과정, 원어민회화과정]

개강 3월 4일(수) 중국어 시작하기 좋은날~

# 3월 4일(수요일) 새학기 개강

GO CHINA 스페셜 "2015중국어 완성 프로젝트"

- ▶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입학이 어려워요!
- ▶ 영어를 포기하면 취업이 어려워요!
- ▶ 중국어를 포기하면 미래가 어두워요!

2015년에는 고차이나에서 중국어를 마스터하십시오! 성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china.co.kr

지금 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동) 구오탈리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대리점모집센터

##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되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꽃 김시연' 양이 전국모범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유니콤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